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제2장 : 복음 안에서의 인사와 감사, 빌립보서 1:1-11,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매튜 S. 하몬 박사가 빌립보서 강해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복음 안에서의 인사와 감사"이며, 빌립보서 1장 1-11

절을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강해 두 번째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빌립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제목은 "복음 속 인사와 감사"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서두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복음 안에서의 인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다룹니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표준역(English Standard Version)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과 2장의 이 서두 부분을 살펴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는 것은 언제나 흥미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정기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는데, 여러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여기서는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묘사하며 시작하는 부분이 매우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종'이라는 칭호의 한 가지 측면은 바울이 동료 신자들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그를 다른 신자들과 구별짓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자신과 디모데를 종이라고 칭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종'이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 설명에 포함시킨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몇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관점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인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내 종' 또는 '주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주신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같은 인물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이사야서 에 나오는 주님의 종들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르러서도 예수님을 묘사할 때 이러한 종들에 대한 구절에서 차용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에게 존칭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빌립보서 1장 1절에 나오는 '종'이라는 칭호의 의미 중 한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그리스-로마 문화적 배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권리 부족과 특정 개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이 특정한 그리스어 단어 '둘로스(doulos)'를 번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다양한 유형의 인간관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노예', 즉 다른 사람에게 법적으로 소유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인과 로마인들이 이 표현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을 연상은 아마도 노예, 즉 다른 사람에게 소유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앞서 언급한 존칭의 의미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지만, 바울과 디모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섬기며, 그들의 우선순위, 계획, 여정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용어가 사용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울이 교회를 특징짓는 리더십의 유형을 그려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리더십 개념은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만 유익을 주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이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과 디모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의 다른 사람들이 행사해야 할 리더십의 유형을 나타냅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자신을 낮추시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 뒷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어서 대충 훑어보낼 수도 있는 이 첫 줄에서도, 바울은 편지 뒷부분에서 전개할 주제와 개념, 아이디어에 대한 작은 단서들을 종종 서두에 넣어두고, 독자에게 편지 후반부에 대해 이야기할 내용에 대한 예고편과 맛보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빌립보서를 반복해서 읽을수록, 이러한 요점들이 편지 전체에

걸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바울이 서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라고 언급한 것은 맞지만, 디모데가 이 편지를 쓰는 데 어느 정도 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나 “우리에게”와 같은 1 인칭 단수 대명사를 자주 사용하고, “우리”나 “우리에게”와 같은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여전히 주된 저자이며, 디모데는 그가 빌립보서를 쓰는 데 도움을 준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네.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첫 몇 구절만 보더라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핵심 단어는 ‘성도’ 또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용어를 들을 때, 그 용어의 주된 의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 시내산으로 데려가 언약을 맺으시려는 장면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기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된 민족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성도’라는 용어를 특별히 거룩하거나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세상에서 구별되었다는 의미에서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라는 용어가 도덕적, 윤리적 차원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별되었지만, 그 구별됨의 일부는 하나님 자신의 순수함을 반영하는 도덕적 성품과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이를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들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구약 시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이러한 표현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또한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순결함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어 성도라는 위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하나님의 빛나는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사실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이사야 6장에 나오는 그림일 것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는 환상을 봅니다. 천사들은 “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 하고 외칩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와 순수하고 불같고 찬란한 거룩하심을 마주한 이사야는 순간 깨닫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나는 정결함이 필요했다.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씨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그의 사명에 관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하지만 그 구절은 하나님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우리의 무가치함을 묵상하게 해주는 참으로 훌륭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면서도, 교회 안에서 특정한 두 사람, 즉 감독과 집사를 특별히 언급합니다. 우리는 이들이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신약성경에서 '감독'이라는 용어가 본질적으로 '장로'와 같은 의미라고 확신합니다.

이는 목회와 설교를 통해 교회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그들을 언급합니다. 또한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그룹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특정한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에서 가장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들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언급했을까요?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서만 감독과 집사를 언급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편지 후반부에서 다룰 교회 일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예고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에바프로디도를 통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온 선물이 감독과 집사들이 함께 준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표현하는 일환으로 서두에서 그들을 특별히 언급하며, 이 선물을 준 그들의 역할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선물을 받는 사람들을 밝힌 후, 은혜와 평화라는 그의 일반적인 인사말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이 '은혜와 평화'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는 종종 그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마치 교회에서 쓰는 말처럼, 기독교 용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 즉 그분의 백성인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총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도록 온갖 짓을 다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너그러운 성품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여기서 사용된 표현은 그리스어 인사말을 이용한 말장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은혜는 charis 이고, 바울 시대의 표준 그리스어 인사말은 chirein 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관련이 있으므로 바울은 이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 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 역시 유대인의 인사말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 시대의 표준적인 유대인 인사말은 샬롬, 즉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인사말은 단순히 적대감이 사라졌다는 의미뿐 아니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단어에서 깨달아야 할 점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역동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했지만,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화의 인사를 건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앞으로 완성하실 일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첫 두 구절에 나오는 인사입니다.

이제 다음 부분인 복음서에 나타난 감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는 항상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하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 사역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에,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투옥되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나 저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더욱 풍성해져서,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흠 없고 순결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3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바울의 감사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요소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서 '모두' 또는 '각각'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는 빌립보 교인들 모두에 감사하는 바울의 마음을

강조하는 방식이며, 그의 모든 기도에서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기도에서는 '모두'와 '각각'이라는 단어가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동역'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언급입니다. ESV는 이 용어를 '동역'으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교제'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다면, 바로 그 단어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 용어의 어려운 점 중 하나는 문맥에 맞는 영어 단어로 일관되게 번역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고 지적해 보겠습니다. 이 용어는 바울이 다른 신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일치를 강조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으로 준 것을 특별히 염두에 두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헌금을 해준 것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눈 교제와 복음에 대한 공동의 참여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또한 6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매우 격려가 되는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비슷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은 우리가 회심한 순간이며, 그리스도의 날에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경험할 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성경은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창조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절부터 8절까지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애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느끼는 애정이 사실은 바울을 통해 표현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애정과 연민을 경험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연민을 표현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8절까지는 감사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뀝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제가 단계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중심적인 요청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지식과 분별력이 넘치는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공허한 감정이나 근거 없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는 지식과 분별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분별력은 우리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지혜와 어리석음을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좋고 무엇이 더 나은지, 무엇이 최선인지 분별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허용되지만 저것은 더 바람직하다는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분별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이 지식과 분별력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적인 간구를 바탕으로 목적 선언이 나옵니다.

넘치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훌륭하고 본질적인지 분별하고, 단순히 지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점진적인 성장,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 열매를 우리 삶이 맺는다는 생각입니다.

순결하고 흠 없는 존재라는 생각은 서두에서 언급했던 거룩함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기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 사람들을 위한 그의 기도, 그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지 말입니다. 종종 우리의 기도는 삶의 특정한 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물론 그런 상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그 밖의 어떤 문제든 마음속에 있는 간구를 그분 앞에 아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본보기가 됩니다. 바울이 편지 서두에 제시하는 이러한 서두의 기도들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 정체되어 같은 기도 제목만 반복해서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9절, 10절, 11절 세 구절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방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문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지문에 담긴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이 구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가? 첫째, 복음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묶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과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이며, 그 정체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의 감사를 깊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감사는 복음에 대한 우리의 공동 참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11절까지는 감사가 중보기도를 통해 표현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서두 구절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제가 제시하는 적용 접근법은 『올바른 질문을 하라: 성경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실용적인 지침』이라는 책에 담겨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얻고 어떻게 발전시키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각 구절을 적용할 때마다 저는 네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이해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서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우선 우리 존재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지적으로 이해함으로써 감사를 더욱 깊게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제 적용의 두 번째 측면은 제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실제로 형성할 정도로 깊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내거나 정체성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느끼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한 가지는 감사로 가득 찬 삶을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종종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로마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인류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 중 하나는 인류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 표현하는 데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손편지나 이메일, 문자를 보내는 것도 좋고,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서두를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빌립보서 첫 번째 구절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살펴보면서 공부를 이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대한 매튜 S. 하몬 박사의 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시간, 복음 안에서의 인사와 감사. 빌립보서 1장 1-11절.